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눅 10:25-37)

교황, 가장 호감도 높은 글로벌 리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인들에게 가장 호감도 높은 글로벌 리더로 드러났다.

갤럽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1~12월 50개국 성인 총 50,261명을 대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등 12개국 정치 지도자와 프란치스코 교황 각각에 대한 호감·비호감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인의 53%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장 호감있는 지도자라고 대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호감도는 대체로 천주교인이 많은 유럽, 중남미 국가들에서 높았고 특히 루마니아, 필리핀, 콜롬비아, 레바논,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등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순으로 교황의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인의 글로벌 리더 13인에 대한 호감도는 프란치스코 교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존슨 영국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순이었다.

봄학기 베델생활강좌 베델교회

어바인에 있는 베델교회(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의 '봄학기 베델생활강좌'가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베델교회 교인이 아니거나 종교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개설 강좌는 기초 미술, 한국화, 유화, 서예, 캘리그래피, 퀼트, 꽃꽂이, 포토샵, 일본어, 바이올린, 크로마 오토하프, 생활한의학, 시력검사 및 안경제작, 홈로스딩 커피, 테니스, 피크볼 등이다.

수강 신청 기한은 3월 1일이다.

▶ 문의: (949) 288-3524

성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 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움과 공허한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어두움이 깔린 세상을 빛이 있는 세상



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천대 받고 고통 받는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백성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본문에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성서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럭저럭 세상을 살다가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끝없는 폭력, 탐욕, 증오, 이기심으로 치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처럼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은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녀는 불타버린 집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고 거르지 않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7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산나는 영국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웨슬리와 6,000여 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한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불로 다 타버린 폐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계속한 손길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변화를 보면서 삶의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은 강도 만난 자에게 치료를 해 주어서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기쁨과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움의 손길, 수고의 손길을 펴서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가 주는 기쁨, 행복, 보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라" 하시지 않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죄의 노예 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손길을 펴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와 감람유로 치료해 주면서 세상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기울일 때 틀림없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세상을 보면서 성취감, 행복, 보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강용규 목사-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실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